

익산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사·함소아, 민간건립 첫발... 생애전주기 의료인프라 탄탄

익산시가 어린이 질환 전문치료기관인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하며 생애전주기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시는 10일 정현을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최혁용(주)함소아 회장, 조현주(주)함소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함소아(재단법인 더함)는 소아재활을 포함해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정 전반을 아우르는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전문병원을 익산에 건립한다.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업무협약

시는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치를 통해 모자보건, 장애어린이 전문서비스 등 의료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정치권과 협치가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다. 이번 투자는 익산시와 한병도 국회의원의 협력

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은 최혁용 회장, 조현주 사장을 비롯한 함소아 관계자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독려했다.

(주)함소아는 재단법인 설립과정을 거쳐 340억원을 들여 연면적 5,2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함소아는 2005년 설립되어 다양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병의원 경영컨설팅 회사다. 1999년 어린이

날 강남구 대치동에 국내 한방 소아과를 모태로 개원한 이래 국내의 70여개의 지점에서 5000명이 넘는 소아 한방 치료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태인 한방 소아과 의원과 17년 경영노하우, 다양한 의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 장비와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익산 제3일빛초 2만9천73㎡ 부지에 400여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 90여명 근로자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기능성 건강식품과 의약품 생산라인 인프라를 익산에 갖추고 있어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한다면 시너지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익산시에 병립 건립 결정해 주신 (주)함소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유전생태습지에 덩굴식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 그늘 쉼터가 조성돼 무더위 속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시원한 힐링 공간 제공

익산 유전생태습지, 덩굴식물과 국화로 생태그늘터널 조성

익산시 유전생태습지에 덩굴식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 그늘 쉼터가 조성돼 무더위 속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동산동 유전생태습지에 시계꽃 백합과, 열매매(하늘매) 등 덩굴성 식물과 현애국화로 생태터널을 조성했다.

유전생태습지 방문객들에게 그늘 쉼터를 제공하고 식물이름, 특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터널 주변에 특색있는 포토존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과 달 토끼이리 조형물과 다양한 식물을 이용해 추억을 만드는 공간을 마련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덩굴식물로 조성한 그늘터널에서 더위도 식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조성 사업은 2023년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장에 적용 가능한 덩굴식물 선정과 폭염에 따른 도시민 무더위 쉼터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연계 추진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1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9000여명 토지 건물 압류절차 추진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우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한 19,968명(체납액 179억7879만원)이다.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자로

선별해 압류 예고 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제징수법 규정에 의거 즉시 압류조치가 가능하나 사전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 등으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위험요소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최근 재해가 발생했거나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123개소다. 시는 부서장을 단장으로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시민 참여와 관심 증대를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개인 소유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고,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주민신청제 주요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하지만,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은(2022년 6월 말 현재 기준 전국평균 8.28%, 전북평균 11.10%, 군산시 평균 11.17%) 상황이다. 시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금융기관, 종교차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를 방문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인감 위·변조 사고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섬의날 행사 MBC M 쇼챔피언 개최

3일차를 맞이한 제3회 섬의날 행사의 열기가 MBC M 쇼챔피언 개최에 힘입어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라 축제에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MBC M 쇼챔피언은 대한민국 최고의 생방송 가요 순위 프로그램 음악방송으로 ATEEZ, TO1, 퍼플스, 코요테 등 인기 아이돌의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어 섬의날 전시관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이 관람했다.

4일차에 접어드는 11일에는 한국섬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제2회 한국섬포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국내외 전문가의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MBC M 쇼챔피언 개최를 통해 상대적으로 '섬'에 대해 생소한 젊은 세대가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구경하고 그 매력이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사업 신청·접수

익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본격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배정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경영 전문지식 현장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컨설팅은 익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30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전문 분야별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상권일지분석, 손익관리, 사업타당성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